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교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교회 서사무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CH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부활주일 죽음 권세 물리치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찬양예배시 임마누엘찬양대 축하 찬양

오늘은 부활주일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1천 5백여 성도들이 모여 드린 특별 새벽기도회는 부활의 아침을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 위한 아름다운 준비였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집회 불리던 아멘찬양대의 '십자가상의 철원'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경건한 사곡이 되었다.

성도들은 장차 부활에 참여할 영광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하였다.

한편 오늘 오후 찬양예배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축하하기 위해 임마누엘찬양대에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라는 제목의 새 찬양을 연주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임마누엘찬양대는 충현의 많은 성도들이 찬양예배에 동참하여 말씀과 더불어 새롭게 작곡되어 연주되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준비하여 찬양에 동참하기

오늘 찬양예배시 연주되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미리 알고 참여하시면 찬양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꼭 소개를 드립니다.

이 곡은 박정호 교수가 충청교회 임마누엘찬양대의 99년 부활절 찬양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곡으로서 곡이 완성되어 처음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전 13개의 작품으로 연결된 이 곡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이로움과 의심, 확인과 놀라움, 기쁨, 그리고 재림

과 교훈 등의 순서로 이어서 마치 한 장면을 완성시키듯 작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 남송(김성길)과 이중환(최신자, 김희숙), 독창(이연)과 합창 등이 잘 어우러지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주를 위해 임마누엘 오케스트라가 수고합니다.

모든 대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와 어울려 연주될 하모니를 통해 오늘 부활절을 맞은 모든 충현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돌리기를 바랍니다.

정로수련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기다리며
4월 5-6일 강원도에서

99년도 전반기 정로수련회가 4월 5일과 6일 1박2일에 걸쳐서 강원도 화진포에서 진행됩니다. 금번 수련회의 목표는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는 정로회가 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정로회원은 예배소서를 다 읽은 이후 5월 1일 상에서 수련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성도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넘치는 수련회를 통해서 정로회와 교회의 일체와 누락되는 복음의 증거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성경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였다.

단원 한국기독교오페라단 창단공연이 4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과 17일(토) 오후 5시에 본교회 갈릴리움에서 열린다. 단원의 60% 이상이 본교회 찬양대원으로 구성된 기독교오페라단의 공연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군전대회 진중세례식 훈련병 2,723명 세례받아

군전대회 및 본교회 목사 정로수 다수는 지난 3월 27일 21년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식에 참여하여 2천7백23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가졌다.

진중세례식은 고된 훈련과 짜여진 생활로 인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마련인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정병들로 거듭나도록 인도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군에서 세례를 받고 제대하는 막대한 인원들이 이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원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였다.

교회일꾼 선출 장로 5명, 안수집사 9명, 권사 80명 오늘부터 피택자 교육 시작

교회는 지난 주일(3월 28일) 4부예배 후 공동의회를 통해 직접선거 방식으로 장로와 안수집사 선출을 마쳤다. 금번에 선출된 피택자는 장로 5명과 안수집사 9명으로써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인원이었다. 피택된 일꾼들이 6개월 간의 교육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신학적 인강의 등을 통해서 잘 준비된 일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로 준비되길 간구하길 기도하여 하였다. 금번에 선출된 피택 장로 및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안수집사 피택자(나인)

박필택 89-622 김은철 89-1472 이명희 89-45
소재철 89-1421 김동진 88-299 김철환 319
유석민 84-559 신동철 83-73 송두집 81-45

권사 피택자(가나단)

장정희 90-433 공종욱 82-563 박도순 4731
권한은 81-419 김경애 2679 김경자 2795
김경자 84-907 김경희 1835 김국강 5187
김금순 83-122 김동규 80-424 김달현 91-53
김미혜 80-91 김성식 1805 김진용 88-849
김성경 88-1040 김성도 89-622 김순식 1590
김순자 89-628 김신자 81 김영숙 90-574
김영숙 80-838 김숙선 82-387 김용수 2122
김은식 88-577 김재숙 84-695 김경화 81-504
나운희 84-1267 문경순 2182 박무강 186
박영희 88-405 박찬래 81-1028 배나리 769
박광민 84-1268 박정희 3406 서재식 2948
송용숙 79-257 신동진 87-592 신숙자 83-605
신영선 1788 안홍녀 80-558 안경자 2282
안향남 1836 양신자 4145 오경희 2009
오수숙 137 최유남 85-786 유미영 1356
이광범 1701 이경자 84-77 이경자 4406
이근자 2809 이규식 84-632 이영선 79-130
이명희 2096 이윤숙 84-843 이영애 81-670
이영자 80-711 이윤자 2366 이은진 5366
이인숙 81-40 이현남 92-82 장정훈 2792
전경숙 79-294 전경자 3559 정명식 4339
정부희 89-45 정성진 83-755 정이수 2082
정은희 86-95 조은숙 2990 조은숙 90-819
조순원 84-623 조은숙 84-134 주정원 90-70
최숙진 3696 최민자 92-1674 최현태 2463
홍성진 2436 홍창숙 88-229

* 피택자 교육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배다
니룸에서 있습니다. (정로피택자는 부부동반)

미혼의 20대 청년을 위한 가결연세미나가 열립니다

4월 4일(오늘) 찬양예배 후 기도원으로

창년1부는 20대 미혼의 청년들을
위한 가결연(가정, 결혼, 연애)
세미나를 오늘(4월 4일)부터 내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합니다.

자녀화와 개방의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가정, 결
혼, 연애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
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 성경적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
를 도와 나가도록 기도 인한 정성적
육체적, 영적 손길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것
입니다. 3번째 가결연 세미나를 실
시하면서 청년1부 내에서는 바른 결
혼과 교제의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고, 또한 바른 성경적 관점에서 결

혼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세미나는 '성경적 자아관,
결혼과 공동체에서의 바람직한 교
제'에 관한 주제강사와 '만남에서
결혼까지'라는 주제의 사례 연구 및
워크숍, 교사들의 결혼 및 연애에 대
한 사례 발표, '믿는 가정은 달라요'
라는 제목의 신포스트 부제가 펼쳐
는 순차, 자연스러운 교제의 시간 '알
고 싶어요 30'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 앞에 세워둔 버스에 주
제발과 신청순으로 탑승하면 됩니다.

한국기독교오페라단 '부활' 4월 15일, 17일 갈릴리움

복음적인 오페라 공연을 통해 세계선
교의 협력자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며 창



김창인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40:12-26)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러가는 초개같도다”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효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님도 빠짐이 없느니라”(26절)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가지를 당신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또한 권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서로 도와 가며 살도록 짝이 있게 창조하셨습니 다. 사람이 숨을 쉴 때에 산소를 취 하고 탄소를 뱉으면 만대로 풀과 나무는 탄소를 섭취하고 대신 산소를 뱉어 서 서로 도와 가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누가 순바닷으로 바다 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 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12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므로 만물에게 자기 고유한 형태와 균형잡힌 위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있게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풀 한 포기 속에도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질서있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보듬어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하시지만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세밀하시어 세상을 섭리하시는 데 한 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3)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누가 여호와와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를 하였으며 누가 그를 공판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단의 도로 보았으며”(13, 14절)

하나님은 전지하시므로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지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

서 지어 놓으신 피조물들에게 친히 책임을 부여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이 자기 몸에 달렸으니 제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고 축복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 것을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녹음하셨다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빈틈없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2.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였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18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이 되게 하였느냐 하시니라”(25절)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엇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비교’란 말은 비슷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무엇과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불경죄가 됩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사용에도 부족하였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사용에도 부족하였느니라”(16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레바논의 짐승 전부를 재료로는 모자라고 레바논의 삼림 전부를 잘라서 화목으로 써도 자라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소유한 물질을 바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경외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의미와 무서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경이란 나보다 높은 분을 섬기려는 마음을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비교할 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마운 분을 향해 공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입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높고 고마우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 온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범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마침내 영육이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믿고 권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아 찾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치 고마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마워서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2)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작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술을 만든 것이니라 금뿔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새우느니라”(19, 20절)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었거나 은으로 만들었거나 무엇으로 만들었든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당시의 형상으로 가장 훌륭하게 지으셨습니 다. 이렇게 귀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보다 차원이 낮은 것들을 앞에 놓고 “너는 나의 신이로라” 하는 이리저리를 짓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서 “너는 우리 할아버지의 조상이로라” 한다며 추박가 들린 것입니다. 사람이 세 온으로 만든 형상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절은 나보다 높은 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 앞에도 절을 하면 개가 사람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 소에 절을 하면 소가 사람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이שראל 백성들이 짓던 우상 중에는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 못해서 파리 우상까지 섬깁니다. 파리를 보고 “너는 나보다 높다” 하면서 우물을 꿇고 절을 하였으니 그 사람의 추박가 한심합니다. 고만 한 인성이 파리를 보냈고 하나님을 떠난 인성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지위는 만물보다 낮아졌습니다.

(3)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로 같고 저들의 족은 티끌 같으며 들

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엮는 것같이 여겨지시니라 ...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모두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러가는 초개같도다”(15-24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류 전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통 안의 한 방울의 물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며 저를 위해 붙들려서 가라앉아 불면 날아가는 티끌과 같아서 마치 없는 것 같은 뿐입니다. 땅 위에 공창처럼 고 있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에게는 인간은 메뚜기처럼 미약한 뿐입니다. 행정력과 사법력을 겸한 우월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을 한 번만 부르면 겨우 심기를 풀이 회리바람에 뿔뿔히 날아가 버립니다.

인간은 아무 값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풀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이었다 저였다 변하기 잘하는 간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열흘을 못가는 꽃과 같고 사람의 생명은 풀 같은 맺혔다가 떨어지는 이슬과 같아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다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복이 많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오랜 기간 살지 않은 빈 집입니다. 저물이 다 남아서 비가 세고 마뭇바닥이 내려 앉고 창문이 떨어져 나간 빈 집 옆을 어두운 밤에 지나가러 가는 사람이 총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복이 많은 것은 영혼이 떠나간 시체입니다. 시체는 무서운 정도로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인격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양심을 팔아 먹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인은 송장보다 더욱 무섭고 더럽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사람입니다. 양심을 팔아 먹은 인생과 우상에게 무릎 꿇는 인생은 아무 값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날 썩을 몸으로 하나님에 명함하신 선한 일에 헌신하고 내게 있는 돈이 없어도 전제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



김성권 목사

가장 위대한 편지

(요한계시록 2:8-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요한계시록 2-3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 당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동시에 모든 시대 교회들의 유형과 현상을 상징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일차적으로 는 항구 도시로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당대의 서마니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긴 편지, 곧 숭혼교회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매우 귀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편지를 받은 영혼으로 읽고 참된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의 이해를 밝히며 우리 영혼에 안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

누가 이 편지를 썼습니까? 편지를 받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낸 편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마니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계 2:8). 우리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되신 자’가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편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아시는 주님

이 편지는 당대의 서마니교회가 당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의 적지 않은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출세 그리고 쉽게 사는 생활양식 등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편지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겪게 될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진경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와 바다의 공평을 아노니 상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정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행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죄인’(요엘). 그러나 서마니교의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예

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순간 순간을 지켜 보고 계시며 진정 그 고난을 이해해 주십니다. 사실, 어떤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아시는 그분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고 바다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환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에게 낯설거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도 내 안에서 행한을 누리게 하라 함이 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공평하나 부요한 교회

예수님은 서마니교회의 공평함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공평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마니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사탄 다른 자원에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크기와 치장, 모인 사람과 차량의 수, 그리고 교인들의 사회적 직분에 따라 교회의 수

형제들이 들을지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팔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약 2:5).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환난과 공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너희를 고난을 두려워말라 볼지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육에 던져 멸망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1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을 보여 주신 가장 부요한 분이십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믿는 자들은 불에 타 죽었고 목 베임을 당했으며 사자굴에 던져졌었습니다. 굶주린 개들에게 뜯겨 죽기도 했으며 굶어 죽고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11절).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을 면제해 주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바로 이 믿음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둘째 사망에 이르지 마십시오. 지금 공평을 당하십시오. 나중은 안일합니다. 둘째 사망을 이길 믿는 자들은 첫번째 사망에서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바다에 빠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계 20:14).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편지 중 가장 귀하고 의미있는 편지입니까? 여러분은 이 편지 안에서 인생의 참된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공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환난과 공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을 보여 주신 가장 부요한 분이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의 고통은 단지 감성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차원의 고통을 이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은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이 실제적인 고통은 ‘처음이요 나중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신” 과정을 통해서 겪으신 고통으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확실한 승리와 완전한 보호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요일 5:4). 물론 지금도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제지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안락과 평화가 아니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과 부요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서마니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하루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해 “부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은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부요함을 보기 위해 사 영적인 눈들을 뜨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고후 8:9).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부요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모세에 대해 말한 것을 들어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수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 보화와 같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선교

단·가·선·교·2

잡만 갈 수 있기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마 25:21). 선교 기간의 길고 짧은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기선교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이 '작은 일' 안에 모든 일이 담겨 있다. '고작 그 정도의 일을 일이라고 하나?'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작 큰 일이 맡겨져도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단기선교는 선교의 가장(庶子)이 아니다. 오히려 선교의 교두보요 기둥타격대이다. 우리는 그곳에 잡만 갈 수 있기에 오래도록 머물 수도 있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가 생명

단기선교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준비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훈련 과정에서 거듭 정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곧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나 성을 거듭 확신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필요나 선교지의 필요나를 거듭 정제해야 하고 훈련의 상황에 맞는 참회적인 접근 방법이 개발되어 있느냐의 문제와 나와 함께 헌지에 갈 대원들 사이에 팀웍이 잘 이뤄지고 있는냐에 점거되어야 한다. 단기선교를 다니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팀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적절한 후속 조치 절실

단기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가 어려운 것이 바로 '후속 조치'이다. 대개의 경우 선교가 끝난 후에 교회 앞에서 행하는 간단한 보고와 대원들의 마지막 미팅 외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 현장의 영적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먼저 대원들의 모임을 정례화해서 선교 현신

자 모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선교 현지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더욱 깊어지고 실제적인 연구와 접근 등이 이뤄지도록 분과별 기도, 연구 모임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영적 흡입력을 통해 다른 지체들이 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단기선교의 열기가 꾸준히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파악하고 들어온 선교 현장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성경 및 전전한 신학자료 보급, 현지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 집중 지원, 중단지 사역자 파송 등)

선배들의 충고 및 마디

단기선교를 다니온 선배들은 나를 대기로 인장같은 경험을 했다.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해주고 싶은 말들은 무엇일까? 너무 많은 기대로 낙심도 말라! / 상황이나 조출렸을 현지 아이들에게 주변 정부상을 일으킨 똘이! / 몸 때문에 일 망치지 않도록 건강주의! / 입을 옷은 현지 사람 수준에 맞추어 가지 가라! / 선교포 내의 내부적인 문제는 정적하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라 등.

성도들의 기도

장거리로 지원 사격

단기선교는 선교대원들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뛰는 영적 전쟁이다. 따라서 후방에 있는 성도들은 지원 부대, 보급부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성도들의 마음은 단기선교 대원들과 함께 헌지에 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지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떨어지는 장거리로 지원 사격임을 알아 참 돌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원집)

외선부가 움직이면 동남아시아가 움직입니다

외선부(국내외국민선교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몽골반, 파키스탄반, 방글라데시반, 중국반, 스리랑카반 등등. 모든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로 뛰고 사명으로 심기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장차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다. 3월 28일에는 스리랑카반 형제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 한국에 오신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셨나요?

수보드(그동안 거의 일년 동안은 직장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요일에 출원지원원 근처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어요. 직장이 없는 동안은 간혹 생기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 그럼, 직업을 잃은 기간에 제일 좋은 직업(예를 들어)을 얻으신 거예요? 크리스(저는 원래 불교를 믿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집사님들이 저희와 묶고 있는 콘테이너를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그때부터 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어요.

* 참고로 이때 콘테이너 안에 함께 머물던 10여명의 형제가 현재 스리랑카반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리(저는 처음에 출원교회에 올때, 놀이하는 기분으로 왔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알고 싶었어요.

아이리부터(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제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천안대의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지요? 다같이 / 주일에도 일해야 할 때 힘들

니다. 친구들 만나면 술, 텔레비전, 포카 등의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부용 목사)은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성경 공부'임을 강조하면서 절기마다 가지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역량을 한가지씩 끝낼 때마다 이들의 신앙이 부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한다.

▶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자신의 신앙도 잘 지키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할 수 있으세요? 다같이 /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

니다. (취재/정경민목사)

지금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서 어린이 사역에 사용될 벨로디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반에는 흔한 악기이지만 선교지에서는 구경조와 해보지 못한 신기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지만 유지된 또는 초중 학생 때 사용했던 벨로디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위원회(선교단 406호)로 4월 11일(다음주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온빈 선교사 일시 귀국

캐나다에서 빈민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및 여성 문맹 퇴치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고온빈 평신도선교사가 지난 3월 26일에 일시 귀국했다. 고 선교사는 당분간 고교에 머물면서 병환 중인 부친(고명복 은퇴장로)을 돌보고 끝인자로 떠날 예정이다.

교육

부모들이 교회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기 할 때가 왔습니다. 부모 따라 자녀들이 교회에 가야 하고 부모의 자정과 시간에 자녀들의 교회교육을 맞춰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주일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가정과 세상에서 컴퓨터, TV, 게임 등 메스컴과 영상매체에 노출되어 세상 재미에 중독되고 세뇌되기 쉬운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실한 교회교육으로 세상을 이길 만능 믿음을 세워 주지 않는다면 개인은 물론이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름길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데 예배와 축화와 성경공부를 한 시간만에 마쳐야 하고 그것도 지각을 하는 학생이면 그 시간마저도 채우지 못합니다. 집으로 갈 때부터 부모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므로 각 시간 늦을수록 잔잔부절모하는 어린이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어가지 교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 봅니다.

얼마 전 미국 한 돌고래쇼장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들은 온갖 재주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포리로 물을 밖으로 차내는 묘기를 연출하여 거대한 물고기들 관중석에서 멀리자는데 이를 보면서 부모와 어린 자녀가 환호를 하며 물이 많이 떨어지는 장소로 달려가서 물을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부모님들에게 당부! 교회교육에 동참할 때

서 동석(장로, 초동부 부장, 제1교구위원회 서기)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편하게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들도 적극 참여하며 자립정신을 길러 스스로를 개척해 가도록 부모된 우리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 대단한 모험심과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어린이들은 물벼락을 맞고서 가리고 생각도 아니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칠 것이지만 아이들이 물을 맞고서 가리고 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불행히 부모가 아닌지는요. 유치원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중등학생들도,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이러한 교육으로 세계 경쟁력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에 치한 교육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교육이 어른들의 편의주의로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영원한 위기를 맞을 것이이며 뒤 봐에 교회의 부흥은 요원할 것입니다. 초등교육이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과 교양을 이용하여 혼자서도 교회에 다니는 수 있도록 부모들의 배려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들도 적극 참여하고, 과잉보호를 과감히 끊고 호러시기를 도와주고 자립정신을 길러 스스로를 개척해 가도록 부모된 우리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교회에 하나니의 말씀에 따라 의도 바르게 교훈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은발의 영광

장 호 웅(타고 장로, 소망부)

할렘루아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화답하다. 죄악과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습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이 인간 지구촌을 한 공동묘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인류에게 믿음의 확증과 산 소망을 주셨습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통과 보수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대교회로 오게 하시고 은발의 소망부로 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의 면류관을 받아왔습니다. "전사들은 후배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후 4:16) 우리는 백발이 송충하고 피부가 쪼그러졌으나 물과 성령으로 속사함은 날로 날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고 하였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아닌 어린아이가 되었습니

다. 믿을 안에서 열매하고 화강하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속사람도 젊고 어린이가 되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재물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부에 나오시는 형제, 자매들은 이때껏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더 활동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과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위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히 10:24, 25)는 말씀을 심중에 새기며 날마다 기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은발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모여서 친목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영의 만나와 육의 만나로 충만케 되어 날로 날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라", "주님 다시 뵈옵 날이 날로 날로 나와와 두거운 집 주께 맡겨 뵈옵 날도 넘길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앞장서서 활동할 힘은
더 이상 없으나
날마다 기도해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게 생할

40대 가정의 자녀 키우기 가장 현명한 믿음

김 용 화(집사, 장년부)

어느덧 40대 중반이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보다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더욱 많고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신앙공동체인 가정을 더욱 잘 이끌어나가야 하는 일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 가는 일이 쉽지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나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나름대로 이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였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날 것으로 예상했다. 당연히 나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고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신앙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물론 신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적인 사회 환경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 합리화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그들을 말씀과 혼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한다. 그러나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계시기에 아이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내 마음을 부딪게 하는 문제 중 다른 하나는 자녀의

친학문문제다. 지금 나에게서는 진학을 앞둔 아이가 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진학문제를 도의시킬 수는 없다.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맡기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도 중에 얻은 이 사업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다. 처음에 보잘 것 없었던 사업

은 그 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고전을 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고교가 있었다. 그 순간은 매우 두려웠지만 지나고 나면 쓸 데 없는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므로.

그동안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다보니 미처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 욕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주님께 받은 복을 세이볼 때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아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 믿음의 부요함을 갖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찬양으로 영광돌릴 종려주일

임 미 숙(권사, 장년3부 교사)

장년3부에서는 종려주일인 지난 주일에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를 위하여 각 반별로 조를 짜서 3-4주 동안 집회가 끝난 후 모여 열심히 연습을 하였던 회원들은 이날 그동안의 쌓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연습한 지정곡 235장 1절과 자유곡 1절을 부르는 찬양의 시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예쁘게 단장하고 입을 크게 벌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는 회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하느니라 찬양대처럼 얼굴들이 빛나보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흘렀다. 사랑3, 믿음3, 소망4, 충성2, 신입반등 등이 부르는 찬양으로 모두들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한 60대의 소년들 소년들이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함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 아닌가!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활의 노래

행방에 도는 바람
주님이 난긴 호흡
차디 찬 흔적 위로
햇살을 물고 와서
새 아침 햇등을 밝혀
오늘도 웃어준다

우주는 동면에서
기지로 눈바다
저 태양 끝이란고
대비를 디스리며
이득이 꾀들을 타고
창궐하는 연다

이 언덕 참된 터전
골디로를 닦아 이어
삼가기 위 부활의 경
안강까지 흐른다
삼삼대 들푸를 예수
이 땅을 지쳐 섰네

그 이름 견뎌낸
한 머리 사랑의 새
삼가기 사유당겨
저 세상 가누어
죽음도 굴하지 않고
부활을 노래한다

김 은 섭(집사, 초동부 교사)

금주에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심부름꾼 한정희 권사



사랑부 학생성명을 다녔어요

또 하나의 감사

이주현(1교구, 사랑부 교사)

사랑부 심방을 하게 되어 지하철로 명일동을 갔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을 잘못 타 많은 시간이 걸려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장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 타 방황하는데 장례를 갖고 있는 어머니의 영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작은 달란트를 이들을 위해 쓰리라 다짐했습니다. 장예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앞으로 이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명일동 그 학생집에 가서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 때문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마음놓고 일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위로할 길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학생 어머니의 말씀이 사랑부 교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와 사랑이란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 학생이 좋아졌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더욱 더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정이나 이웃들 중에 사랑부 학생들과 같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부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친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부 교사들은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남다른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들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늘에라도 큰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교육부 어머니반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부해요

김정순(영어교육부 부장)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의 성경공부반 중에 하나인 영어교육부 어머니반, 어머니반원들은 말 그대로 어머니들이시다. 아이들이 영어교육부의 초등부, 유치부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도 공부하신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같은 어린이용

가공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전도하기는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려 복음을 소개할까?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전도한 초신자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한정희 권사님을 만나 보았다. 권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우리 곁에 있음으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미용기술을 배우셨다. 그 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이런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머리를 만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 주세요. 장로되게 해 주세요. 잘 믿고 권사되게 해 주세요.' 권사님께 머리를 맡기고 파마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게 된다. 권사님은 어려운 말로 하지 않으신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듯 머리를 만지는 동안 내내 성경을 소개하신다.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권사님이 삶 속에서 만난 살아 계신 예수님.

권사님께 머리를 맡기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의사, 피혁공장의 사장님, 군인, 고된 많은 아주머니들,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의 전도 앞에서는 콧속(?)을 못간다. 최대 10년까지 한 영혼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 사랑의 영혼을 건져야지' 하는 사랑 말이다. 권사님께서 계 미팅은 말씀하셨다. 성경 66권을 대러서 켜면 사랑이 나온다.

권사님께서는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셨다. 지금의 주간 성경공부반의 초기부터 열심히 10년이나 꾸준히 공부하셨다. 수료증이 몇 개 되는지 모르겠다고 웃으신다. 권사님은 소망이 있다.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다. 언젠가 통일된 이북으로 가서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 주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신다.

어떻게 권사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을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자랑거리가 너무 없어서 예수님께 자랑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 난 심부름꾼일 뿐이야. 예수님의 심부름꾼!' (취재 / 이수경 기자)

이명증서 1호

자살하려던 자리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옮겨진 귀한 그 영혼

박종영(집사, 4교구)



3년 전 장년의 한 남자가 생을 마감할 때 누구까지도 해답을 걸고 있을 때 구역의 성도가 발견하여 교구에서 돌보게 되었다. 이름도 성도 없는 고아 영에 비대한 연배의 장로님의 이름과 나이를 따서 목사님과 같이 신원증인이 되어 소원하던 주님들복음을 받아들이고 저금통장을 만들고 약간의 저금도 하였다.

은 교구 성도들의 향기로운 보살핌으로 한 칸의 방과 가구를 갖추게 되었고 새가죽부를 거쳐 세례교인으로 성장하였으나 여기에 감사치 못하고 적당도 계속 못 다니고 열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여 성도들의 집이 되어갔다. IMF를 맞아 교회의 주재는 있으나 삶의 의욕이 없어서 쉼은 날이 많아졌다. 어찌할바를 모르고 마음 아파 주님을 찾아도 대답없는 침묵. 그러던 날달 전에 지방의 아파드 경비로 취직이 되었으나 가끔 울면서 이 세상 고달파서 못 살겠다며 자살연을 해왔다.

그런데 몇일 전 반가운 목소리로 그 직장을 계속해서 나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지난 주일 때는 반부 외로워서 집 근처의 장애인 수용시설인 섬길의 집에 신물을 받고 방문을 했더니 그렇게 반기다하며 행복해 하였다. 지금은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시간이 나는 대로 상가 빌딩의 개척 교

회에서 사할 일을 자인 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초역전 주님이요 충현교회의 등록된 성도이기에 지난 12월 5일 토요일 새생명교회로 이명하면서 다음날인 주일을 위해 교회 청소를 다하고 왔다는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말을 들으며 함께 손잡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세상에서 고아요 이방인이었던 한 영혼이 50세 나이에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제정된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는 마치 같은 천화를 받으며 그간에 낙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준 은 교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

충현교회 46년의 연륜에 성도의 이명증서는 처음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부득이 타 교회로 이적할 때에는 꼭 이명을 하여야 했다.



도움이 필요해 손을 내밀면 주저없이 잡아 주시는 영어교육부의 든든한 어머니반.

영어교육부의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앞으로 충현을 이끌어나갈 저 아이들. 이젠 그런 모습으로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아닌가. 그 밑에서 든든히 힘이 되고 있는 어머니반을 생각하면 충현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을 느낀다.

탐방 - 중동3부

중동3부에 가면 교회생활이 행복해서 못견디겠다는 듯한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그 기쁨에 대하여 끊임 없이 자랑을 늘어 놓았다. 요즈음 교회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감동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 밖에는 그들을 사로잡을 만한 자극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교회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요즈음, 중동3부는 과연 눈여겨볼 만한 부사이다.

학생들은 중동3부가 행복한 이유 두 가지를 힘주어 말한다. 우선 학생들은 중동3부의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 선생님들은 선입견 없이 학생들을 대해 주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신뢰감을 나타낸다. 특히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열의를 알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과 교사간의 벽을 허무는 분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신도에서 사신 선생님들은 회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에 감사가 많을 수 없다고 한다. 선생님들의 열정은 학생들을 감동으로 몰아 넣고 학생들은 그분들의 정성이 눈물집다는 교감이 귀하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와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자신들도 모르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중동3부에 있고 있는 또 하나의 신선한 물결은 '세이청'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서 시작된다. 중동3부에서는 교사들이나 중학생들이 찬양을 기뻐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세이청을 창단했다. 세이청

교회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 지난 2월 겨울수련회에서 공동체훈련으로 들뜬전 나르기에 열중하는 학생들

은 찬양 훈련을 하는 소그룹활동이다. 이 그룹이 중동3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처음에는 세이청의 구성원들 사이에 간단하게 감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 은혜의 물결은 점차 중동3부 전체를 덮어갔다. 이들은 생활 속에 찬양, 무의식적인 찬양, 잠 자다가 찬양하고도 감격스러워한다. 찬양에 찬양하는 은혜는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 중동3부 전체를 기쁨으로 끌어안는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이토록 감동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사들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사춘기의 청

소년들을 감동으로 담구어 놓은 것이다. 보수와 개혁의식이 균형잡혀 있고 있는 교사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교회생활을 행복하게 만든다. 교사들은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이다. 교사들 사이에 이 같은 인성을 바칠 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이다. 권선형 목사님과 부장 송동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철저하게 자율적이다. 이 철저한 자율은 철저한 강제성을 뛰어넘어 교사 출석률 100%를 기록할 만큼 위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끼리의 유대의식도 대단하여 서로의 애정사에 참여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다.

또 교사들은 전도에 남다른 애정을 쏟는다. 이미 치밀한 전도계획을 수립하였는데도 전도는 양과 질과 세분화하여 실천에 계속하였다. 이 행사는 구별을 답습하는 행사가 아니라 교사들은 조연과 정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적극 전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교사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학생들에게 관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생가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최과장희의 때문에 충분한 취재를 못했지만 나오다 만난 학생들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상세히 주었다. 중동3부에서 진리와 사랑을 축으로 하는 교회교육의 전면목을 보았다. (원재·정연희 기자)



△ 학기초에 있었던 교사수련회에서 패널토의를 시작하면서...

지혜로 소식

영아부

아빠들이 함께한 성경이야기대회
지난 주일 성경이야기대회를 열었다. 기도하며 준비하여서인지 이야기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게 했다. 성경이야기를 그림으로 준비해 더욱 실감나게 발표했다. 이날 부모가 함께 준비한 '죽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의 시간이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여동생의 괴로워하는 표현을 어찌나 실감나게 하는지 듣는 우리도 같이 괴로워하며 슬퍼했다. 예전에는 영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요즘들이 아빠들이 많이 참여했다. 애잔한 영아들의 참여가 많아졌다. 아기를 기우며 가르치는데 영아들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아름답게 보였다. 짧은 시간이 준비하여 완벽하게 해내는 영아 아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성경암송대회 드디어 오늘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성경암송대회 본선이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된다. 암송한 성경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고린도전서 15장 1-15절, 지난주 중 46명의 신청자 중 엄정한 예선을 거쳐 최종 10명이 본선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암송대회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서 깨고 일으켜서 신언하며 믿을 것은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히 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문숙희 통신원)

중동1부

25일 총동원전도주일 준비
4월 25일 총동원전도주일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박도철 목사님의 전도특강이 있었다. 한 성경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 말로,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달으며 결심하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장기전도사 명단을 만들어 함께 심방할 예정인 양 찾기에 교회로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 자녀들은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 경우, 부모님을 찾아뵙고 권면하기로 했다. 같은 도래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경공부를 하며,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중동1부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희 통신원)

중동2부

교육평가 실시
제1기본 교육평가를 하였다. 종전의 제1평평가에서 벗어나 '골든벨 평가'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성경퀴즈를 결집한 이 새로운 신세대적 평가에 학생들은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교사평가회에서 이 방법이 약간의 오락성에 치우쳐있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교사들은 평가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더 나은 평가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심순옥 통신원)

청년2부

회합과 사랑 다지는 등반 행사
4월 5일 관악산 등반 모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몸을 마음껏 즐기면서 회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당일(4월 5일) 오전 10시 30분 관악역에서 모여 관악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4월 11일은 99년도 1/4분기(1-3월) 신입회원들만의 특별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2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간식과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백영자 통신원)

사랑부

기쁜 주일날
사랑부에서 세 가지 즐거운 일이 있었다. 첫째는 귀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다. 애매한 전도에 찾아온 학생은 석유였는데 나오게 된 동기는 어떤 전도사의 끊임없는 전파라고 했다. 사랑과 관심, 이것이 전도의 기본이 아니까 싶다. 석유이가 교회에 잘 적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날로날로 커지기를 바란다. 둘째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랑부 선생님들이 100% 출석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간의 분반 공부 주제였던 '하나님의 창조'를 지난 주까지 다 배우고 공부부터는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이 세상 모든 것, 즉 낫과 밭, 배와 달, 각종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또 자신까지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라는 해를 가지고 같이 성경공부를 한다. 학생들이 분반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들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란다. (정여자 통신원)

9교구

작은 바자회
마리아전도회에서 얼마전 작은 바자회를 열었다. 연례행사라 새 봄을 맞아 작지만 웃음꽃이 다 핀 동화책에서부터 전과, 학용품, 찻잔 등 종류도 다양한 아기가기하게 진열을 해 두어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 가는 것인데 100원부터 천원 정도의 가격이라 부담없이 즐겁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바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어릴 때는 준비해온 우리 마리아회원의 가정으로 모자친 수급금은 주부에서 구제금으로 쓰기로 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헌신하는 마리아 9지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전도회로 날로날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리다. (정옥련 통신원)

외선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아멘교회들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온 7월과 60여명의 외국인들이 매주 모여 회합과 분반공부, 3주에 예배로 모이고 있다. 주일 새벽 2시 30분에서, 혹은 7시까지 일을 했으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오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귀중한 천국들과 이들을 맞이하는 교사들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 아아 아름답다.

교회소식 / 다짐해 생각합시다

●알림

1. 부활절 감사헌금 / 오늘 1, II, III, IV, V 부메시에 드립니다.
2.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11일(다음 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 신청하시고 일정표의 일정에 따라 주사가 바랍니다.
3. 이미용전도회 직능교육 희망자 접수 / 오늘까지 김순실 집사(564-0549)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4월 셋째주부터 3개월 과정(매주 월, 화, 수 교육 실시)
· 교육장소 : 이룸미용선교관 · 교육대상 : 루디아전도회원 중
4. 만도린 연주대 대회 모집 / 기타 연주 가능한 성도들과 기초반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이연순 집사(3463-0344)
5. 출현복자단 생활지도사 모집 / 문의 564-4885

●도임

1. 정기당회 / 7월(수) 20:40 당회실
2. 절로 화요새벽기도회 / 6월(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의 화요새벽기도회 / 5월(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우기도회 / 오늘 15:00, 갈릴릴로
5. 건축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10, 선교관 505호
6.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감사위원회실
7. 남녀전도회 회장, 부회장 모임 / 오늘 15:00, 갈릴릴로
8. 경향교회 월례회 / 11일(다음 주일) 15:00, 배후라기울
9. 전직학생회 후보자 기도회 / 6월(화) 18:30, 만나홀(석사 후 선교관 301호)
10.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8월(목) 새벽기도회 후, 실업인전도회실
11. 안수집사 월례회 / 오늘 15:30, 만나홀
12. 전사회 제1지회 월례회 / 7월(수) 1부예배 후, 사당부실

●남녀전도회

1. 루디아 3 / 9월(금) 14:30, 출현기도원
2. 루디아 5 / 8월(목), 출현기도원

세·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477	권은영	19	청년1부		484	홍순영	13	바울	조복순(13)	491	염병남	19	청년1부		498	이영진	19	대학부	장정애(3)
478	최은정	1	청년2부		485	박성진	15	청년1부	이승득(1)	492	김승진	2	청년1부		499	이화연	19	청년1부	이부성(1)
479	이유봉	2	바울	박윤석(8)	486	나성욱	19	대학부	장정애(3)	493	서만자	14	에스디	남현숙(9)	494	구대환	19	중동부	
480	유순이	2	루디아	박윤석(8)	487	김강희	19	대학부	장정애(3)	494	구대환	19	중동부		495	노현용	4	중동부	
481	방영태	11	베드로		488	나영진	19	대학부	장정애(3)	495	노현용	4	중동부		496	이성원	10	고동부	
482	김명송	12	한나	신동미(12)	489	이화연	19	청년1부	이부성(1)										
483	박극대	13	조망부	조복순(13)	490	이지희	19	청년1부	이부성(1)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짐해 생각합시다

사랑은 식탁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들을 향하고
서로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교통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는 것이다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사랑부(정신장애) 지체들을 섬기는 교육부서) 지체들이 국수를 먹기 위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만나홀로 내려온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국수를 먹으면서 담소하고 있거나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만큼 정겨운 일도 드물다. 이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입은 은총을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이제 사랑부 지체들이 국수를 받아서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약간 어색한 기운이 감돌 때가 자주 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자리에 앉은 이들과 자연스런 눈인사를 나누거나 맛있는 먹거리로 격려를 한다. 또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물을 줄 때 주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사랑부 지체가 자기 앞

이나 옆에 앉으면 국수를 먹다말고 슬며시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사랑부 지체들과 교사들의 마음이 이때만큼 섬스럽고 속상한 경우도 많다.

문둥병자들의 환부에 손을 대시며 치료하신단 예수님의 손, 수많은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신 주님의 마음을 찬양하던 마음은 다 어디에 갔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논하던 입술이 부끄러움을 따를 이다.

사랑은 거룩하고 고상한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체들과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이다. 우리의 가슴이 그들을 향하고 서로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교통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는 것이다. (편집실)

●결혼

1. 박용필 군(박철희 성도, 한중순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홍은영 양(홍시 오 안수집사, 최현숙 권사의 딸, 17교구) / 5월(월) 13:00 충남 부여 유호스텔(교회에서 8시 출발,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9시 출발)
2. 전승기 군(전용호 씨, 김문희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박경희 양(박기용 씨, 김영분 씨의 딸, 19교구) / 10월(월) 13:00, 갈릴릴로

●별세

1. 신상문 성도(박병희 집사 남편, 14교구 오우구곡) / 3월 31일 별세, 4월 2일 장례

●전회번호 변경

1. 최영선 집사 / 0343-383-6050

※ 제2차 학습세례식 일정 ※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1일 (주말)	12:00~15:50	기독교교인	교육관 314호	세례관 (김영환 목사)	교육관 307호		
	16:00~16:50	장장교인	교육관 314호	세례관 (김영환 목사)	교육관 307호		
4월 18일 (주말)	12:00~15:50	주필교인	교육관 307호	구대환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16:00~16:50	문당	교구별 장소	문당	교구별 장소		
4월 25일 (주말)	전일예배	성인 학습자, 세례자 (세례 찬양대, 본당)		유아 세례자 (오우구곡, 갈릴릴로)			

금주의 교구영성훈련

4월 6일(화) 4교구 8월(목) 5교구 9월(금) 9교구

출현 중보의 창

① 김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게 하소서.

②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③ 이번엔 선출된 장로, 안수집사, 교사 피택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권을 받아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④ 현재 진행 중인 99년도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을 통해 교구식구들이 복을 안에서 하나되며 진정한 헌신과 열정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⑥ 각 권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⑦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4월 11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 2·4부예배
소프라노 박혜진
(이만찬당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생명의 양식
· 주기도문
· 주님을 찬양하라
·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 3부예배
클라리넷 박성호
(합평루아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 5부예배
벨레남성중창단
(벨레찬양대)
· 감사하라
· 그는 나를 만났네
· 주여 내 기도 들으사
·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

- 원로목사
김장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권형준 김재철 이우승 정갑진
정현민 조호만 조철수 김동하 차병문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숙하
장형석 박노현 이윤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흥민
- 선교사
이준교 안철원 김영태
- 감동사
박찬기 엄원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희배 손희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륜 한영준
박광호 김형숙 김복순 김연희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한승인 김영기 송원식 김장중 조재민
허용구 김병수 이종태 김윤식 김일승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대환 이석현
- 원전도사
류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섭 강기영